

蔣士銓의 詩論 연구

신재환*

【 차례 】

- I. 서론
- II. 性情과 自我의 중시
- III. 復古와 摹擬의 반대
- IV. 忠孝와 義烈의 표방—杜甫 시에 대한 추승
- V. 黃庭堅 시에 대한 경도
- VI. 결론

【 국문초록 】

蔣士銓은 清代 乾隆 시기 性靈詩派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乾隆三大家'로 불리며 시와 희곡 등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詩學理論 方面에서 본다면, 그는 忠孝와 節義의 몸가짐으로 일생을 보내며 論詩 성격을 띤 몇몇 시편과 序跋類의 산문 중에 자신의 개성적인이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는 인간의 진솔한 性情을 표출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와 같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개성이 담긴 자신만의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표출된 진솔한 성정은 人倫 중의 忠孝와 義烈의 덕목으로 발현되어야 후세에 전해질 수 있을뿐더러 독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또한 역대로 자신이 제기한 이러한 詩作 정신에 가장 충실했던 작가는 바로 盛唐 시기의 杜甫였음을 말하고, 두보 시에 대한 무한한 추승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詩作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당시 일시적으로 성행하였던 復古와 摹擬의 경향을 척결하는데 있다고 하며, '宗唐'의 기초위에 주로 형식적인 수사에 치중했던 沈德潛을 중심으로 한 格調詩派의 시법을 극력 반대하였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자신은 창작 과정에서는 才學을 중심으로 ‘瘦硬’의 풍격을 추구하였던 江西詩派의 黃庭堅의 시풍에 경도되었으니, 그의 이러한 學詩 경향은 내면에 잠재된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당시 황정건 시풍의 표방을 주요 기치로 내걸었던 秀水派의 중심인물이자 평생 스승으로 삼았던 金德瑛과의 특별한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蔣士銓, 袁枚, 性情, 自我, 復古, 摹擬, 忠孝, 義烈, 杜甫詩, 黃庭堅詩, 金德瑛

I. 서론

蔣士銓(1725~1785)은 자가 心餘·淸容·菴生이고 호가 藏園 또는 淸容居士이며, 江西 鉛山人이다. 淸 乾隆 22년(1757) 진사에 급제하여, 일찍이 翰林院編修를 역임하였다. 그는 京師에서 관리로 있을 때 이미 명성이 자자하였으니, 당시 工部尙書였던 裘曰修(1712~1773)의 추천을 받음으로써 乾隆帝는 그를 파격적으로 중용하려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친 鍾氏는 아들의 성격이 너무 강직하여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까 걱정한 나머지 아들이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학문에만 정진할 것을 중용하였다. 이에 건륭 29년(1764) 장사전은 관직에서 물러나기로 마음 먹고, 한편으로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金陵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차례로 叢山·崇文·安定의 세 곳 서원에 머물면서 평생 강학에 종사하였다.¹⁾ 만년에는 시로써 袁枚(1716~1797)·趙翼(1727~1814)과 더불어 ‘江右三大家’ 또는 ‘乾隆三大家’로 불리며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장사전은 시론가로서의 명망보다는 시인으로써 더 큰 명성을 얻었다.

1) 拙稿, 〈隨園詩話 研究〉(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년 6월), 264쪽

현존하는 그의 시는 대략 2,500여 수에 이르니, 동시대의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량이다. 작품의 수량 뿐 만 아니라 질적 완성도 또한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乾隆 盛世를 살았던 시인이 嘉慶 이후 쇠락해가는 시대 상황을 예견하고는 점차 심해지는 계층 간의 빈부차와 이로 인한 백성들의 질곡, 더 나아가 이러한 부조리를 조장하는 관료사회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현실지향적 성향의 시편을 다량으로 남겼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이미 시인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확보한 장사전이긴 하나, 論詩詩의 성격을 띤 몇몇 시편과 동 시기 문인들의 시문집에 써준 序跋類의 문장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의 시학이론은 후세 연구가들에 의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실정이었다. 즉 그의 시학이론은 당시 원매가 제창한 性靈詩說을 基調로 삼고 있지만, 각론 부분에서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관점을 지녔다고 인정되기에, 본고에서 간략하게나마 그의 시론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性情과 自我의 중시

청대 중기 원매가 중심이 되어 제창한 性靈詩說은 그 本領이 ‘獨抒性靈’으로, 詩는 모름지기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펼쳐내고 性情을 자유롭게 표출해내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시학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사전 또한 인간의 본성 즉, 性情의 중시를 시론의 第一義로 제시하였으니, 〈鍾叔梧秀才詩序〉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각기 性情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이 천하 후세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시가 가장 두드러진다. 성정이 박약한 사람은 스스로 보일 것이 없어 오직 格調를 분뜨고 아름다운 문사를 주워 모음으로써 문장을 교묘하게 하는데 힘쓸 뿐이니, 참으로 비루하고 용속하도다. 세력이 강성하면 일시적인 명예를 흠치지 않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할 만한 시기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후세 사람들의 공론은 끝내 속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당시 과리처럼 달라붙고 개미같이 모여드는 무리들이 힘 있는 자들을 추앙하여 오직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 하니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 지은 시가 있으면 더 이상 제현들의 시편을 기억하지 않고 지은 시가 모두 나의 시이기를 바랐다.

古今人各有性情，其所以藉見於天下後世者，於詩爲最著。性情之薄者，無以自見，唯務規模格調，摭拾藻會以巧文，其卑陋庸鄙之眞，當勢力強盛，未嘗不竊一時名譽，迨無可畏忌之時，而後人公論，卒難誣罔。然當時蠅附蟻聚之徒，崇之惟恐不至，亦何愚也。……及有所作，則不復記諸賢篇什，庶幾所作者皆我之詩。²⁾

作詩에서 性情의 표출을 중시하는 장사건의 시학 관점은 일차적으로 당시 沈德潛(1673~1769)을 중심으로 일부 관변 작가들에 의해 제창된 格調詩說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타고난 성정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데는 시만 한 장르가 없다고 하면서, 만일 시인이 성정이 박약하면 결국 모방의 한 유형으로 포장된 格調로 빠져들게 된다고 여겼다.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가 극점에 이르면 격조만을 본뜨면서 형식적인 美文意識에 빠져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글을 주워 모으기에 급급한 격조시설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시단을 뒤덮게 되는 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시단의 부조리함은 언젠가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나타내면서, 자신만이라도 성정을 표출해내는 시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

2)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13쪽)

이 담긴 참된 시〔我之詩〕를 지을 수 있는 작가로서의 본연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것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邊隨園遺集序〉에서는 성정의 구차스러움이 초래하는 격조시설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세속의 학설에서부터 모의와 답습의 술수를 숭상하고 단지 성률과 자구 사이에서 공교로움을 추구하며, 읊조리고 노래하는 근본에 어둡게 되면 성정은 나날이 구차스러워지고 꾸밈은 더욱 거짓이 된다. 시대를 구분하고 종파를 나누면서 옛 사람의 겉〔외형〕은 다르나 속〔본질〕은 같은 형편을 알지 못하니, 마치 서예가들이 (글씨의) 살찌고 야위며 좋아하고 싫어함이 비록 다르지만 붓끝과 팔 힘은 하나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自俗說尚摹擬襲取之術，但求工於聲律字句間，而昧其詠歌之本，性情日媮，粉飾益僞，界畫時代，割據宗門，不知古人外異中同，猶之書家肥瘦好醜雖殊，而筆鋒腕力則一也.³⁾

格調란 格律과 聲調를 합친 용어로서, 격조를 강조함은 詩法의 범주에 속하는 형식적인 수사에 힘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장사전이 말한 ‘성률과 자구 사이에서 공교로움을 추구함’이란 바로 심덕잠과 그의 추종자들이 표방한 만고불변의 고정된 詩法을 가리킨다. 그러나 장사전은 作詩 과정에서 이러한 격조의 강구는 결국 性情〔시의 내용〕을 구차스럽게 하여 粉飾〔시의 형식〕을 점차 참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여겼다. 그 결과 시대와 종파라는 획일적이고 고정된 기준에 의해 시를 평가할 뿐이니, 옛 사람의 참된 시적 성취는 아랑곳없이 그저 어느 시대 어느 종파에 속한 작가였는지가 시적 성취를 가늠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시인이 추구하는 형식적인 꾸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정은 여전히 한결같음을 강조하면서,

3)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02쪽)

이러한 성정을 시인의 참된 꾸밈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해내는 과정이 곧 作詩의 요체라고 설명하였다.

장사전의 才學과 人品을 무한 신뢰하고 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자임하였던 원매 또한 성정과 격조의 반비례적 현상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니, 〈趙雲松「甌北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楊萬里가 말하기를 「격조란 빈 틀로서, 재주가 졸렬한 사람이 가장 쉽게 핍계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周櫟園이 말하기를 「내가 하경명과 이몽양이 격조로써 세상을 기쁘게 한 것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푼의 격조가 많은 자는 반드시 한 푼의 성정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음미해보면 더욱 믿음이 간다.

楊誠齋之言曰：「格調是空架子，拙人最易藉口。」周櫟園之言曰：「吾非不能爲何・李格調以悅世也，但多一分格調者，必損一分性情，故不爲也。」玩此二公之言，益信。⁴⁾

원매가 비록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고 宋代 楊萬里(1127~1206)와 清代 周亮工(1612~1672)이 격조의 폐해를 말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明代 前七子の 대표 인물인 李夢陽(1472~1529)과 何景明(1483~1521)이 각각 ‘글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방법’과 ‘작법의 구상과 설계’로 여겼던 ‘格’(格調)을 강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性情’을 잃게 된다고 말하였다.⁵⁾ 이는 장사전이 〈鍾叔梧秀才詩序〉에서 말한 ‘성정이 박약한 사람은 스스로 보일 것이 없어 오직 격조를 본뜬다’고 말한 내용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성정의 표출을 중시함과 더불어 참된 자아의 구현을 강조하였으니, 장사전은 〈文字〉 4수 중 제4수에서 부질없이 문호에만 기댄 채 시에 참된

4) 《小倉山房文集》 권28 〈趙雲松「甌北集」序〉(《袁枚全集》 권2, 489쪽)

5) 拙稿, 〈隨園詩話 研究〉(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년 6월), 185-186쪽

자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격조시파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文章本性情,	문장은 성정에 근본하니,
不在面目同.	면목이 같음에 있지 않다네.
李杜韓歐蘇,	이백·두보와 한유 그리고 구양수·소식은
異曲原同工.	곡조는 달랐으나 공교함은 원래부터 같았지.
君子各有眞,	군자는 각기 참됨을 지니고 있으니,
流露字句中.	자구 가운데 드러나는 법이라네.
氣質出天稟,	기질은 천성에서 나오지만,
旨趣根心胸.	지취는 흥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네.
誦書見其人,	글을 외우면 그 사람을 보게 되니,
如對諸老翁.	마치 여러 노옹(老翁)을 마주하는 듯하네.
後賢傍門戶,	후세의 어진이들 문호에 기대니,
摹仿優孟容.	광대의 얼굴을 본뜨는 격이라네.
本非偉達士,	본래 뛰어나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 아닐진댄,
眞氣豈能充?	참된 기질을 어찌 충당할 수 있으리오?
各聚無識徒,	각기 무식한 무리들 모아서,
奉教相推崇.	받들면서 서로 추송하게 하네.
之子強我讀,	그대 나에게 억지로 읽으라 하나,
一卷不克終.	한 권도 끝낼 수 없다네.
先生何許人,	선생께서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細繹仍空空.	자세한 진술은 여전히 텅 비었다네. ⁶⁾

시인은 각자의 흥금[성정]에 뿌리를 둔 시를 지어내기 때문에 나타나 는 양상 또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이백·두보·한유· 구양수·소식 같은 걸출한 대가들이 자신만의 참된 자아가 담긴 시를 지 어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참된 자아를 갖추고 있으면 저절로 작품에 드 러나게 되는 법이라고 여겼다.

6) 《忠雅堂詩集》 권13 (《忠雅堂集校箋》 권2, 986쪽)

그는 또한 ‘旨趣’ 즉, ‘성정이 녹아 든 시인의 大意’는 바로 흥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제각기 다르듯 시인 또한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자아실현의 작품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태어날 때부터 품부 받은 ‘참된 기질’(眞氣)을 표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문호를 만들고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얽매이게 한다면 결국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시를 지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추송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장사전은 자아가 담긴 자신만의 시를 지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學詩 경력을 말하면서 “오로지 본 바를 그대로 펼쳐냄에 옛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나의 시를 짓게 되었다.”(惟直抒所見, 不依傍古人, 而爲我之詩矣.)라고⁷⁾ 말하기도 하였다.

Ⅲ. 復古와 摹擬의 반대

장사전이 살았던 시대는 淸代 초기에 일시적으로 고개를 들었던 시가의 현실주의 전통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明代 前後七子の 복고주의 시풍으로의 회귀와 이른바 ‘宗唐’이니 ‘宗宋’이니 하는 편향과 모의의 경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사전을 포함한 性靈派 시론가들은 대체적으로 복고와 모의의 경향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녔으니, 원매는 〈萬柘坡詩集跋〉에서 宋詩를 표방한 浙派 시인들이 “明七子가 盛唐을 모방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이들 무리는 천박한 말로 잔존한 宋에 견강부회하였다.”(不知明七子貌襲盛唐, 而若輩乃皮傳殘宋)라고 하여,⁸⁾ 명대 전후칠자가 성당의 시풍을 모의하는 것과

7) 《忠雅堂文集》 권2 〈學詩記〉(《忠雅堂集校箋》 권4, 2060쪽)

8) 《小倉山房文集》 권11 (《袁枚全集》 권2, 201쪽)

浙派 시인들이 맹목적으로 宋詩의 껍데기를 쫓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였다. 趙翼 또한 《甌北詩話》 권4 제5절에서 “대체로 재주 있는 사람들은 명성을 좋아하여 반드시 천고에 없었던 것을 창조한 후에야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大凡才人好名，比創千古所未有，而後可以傳也。)라고 하며, 모의의 한 양태인 和韻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장사전 또한 복고의 폐단을 지적하여 〈阮見亭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초 지방의 말을 지껄이는 자들이 혹 공안파와 경릉파를 묵수함에, (완용광이) 진실로 그 잘못을 알고 고치려 하였으나 또한 이반룡의 울타리와 뒷간 사이로 떨어지니 모두 잘못이다. 불교에서는 여러 惡趣를 지옥으로 여기는데 종성과 담원춘 그리고 왕세정과 이반룡 모두 악취이다. 별도로 낯선 면모를 펼쳐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는 成佛까지도 할 수 있으나 生天⁹⁾밖에 못하는 격이다.

夫操楚聲者，或墨守公安·竟陵，苟知其失而救之，又墮歷下籬廁間，皆非也。佛以諸惡趣爲地獄，鍾·譚·王·李皆惡趣也。能別開生面，仍不出古人法度，斯可成佛而生天矣。¹⁰⁾

장사전이 이 글을 지은 때는 건륭 40년(1775) 그의 나이 51세 되는 해로, 당시 그는 모친의居喪을 위해 南昌에 머물렀고, 친구 阮龍光(호 見亭) 또한 잠시 남창에 지낼 때였다. 완용광은 楚中の 이름난 선비로서, 당시 그 지역의 시인들이 명대 후기 개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반복고의 기치를 내걸고 활약한 公安派와 反擬古로 고전시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竟陵派를 고집하자 그 잘못을 알고 고치고 하였지만 자신 또한 명대 後七子의 대표 인물인 李攀龍(1514~1570)의 의고주의적 골래

9) 생천(生天) : 불교용어로서, 열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죽으면 후에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10)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17쪽)

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더하여 鍾惺과 譚元春이 중심이 된 경릉파와 王世貞과 李攀龍이 대표격인 후칠자 모두 불교에서 이른바 고통의 나락으로 상징되는 지옥과 같은 형국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충분히 자신의 개성이 담긴 참신한 시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였다.

비교적 장문의 論詩詩 성격을 띠고 있는 〈辯詩〉에서는 당시 복고와 모의의 풍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어느 조대에도 치우치지 않은 자신만의 시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唐宋皆偉人,	당과 송의 시인은 모두 뛰어난 이들이니,
各成一代詩.	각각 한 시대의 시를 지을 수 있었다네.
變出不得已,	변화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니,
運會實迫之.	시세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네.
格調苟沿襲,	격조와 시인들이야 구차스럽게 답습한다 하더라도,
焉用雷同詞?	부화뇌동하는 문사를 어찌 쓰겠는가?
宋人生唐後,	송인들은 당 이후에 태어나,
開闢眞難爲.	새로운 길 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네.
一代只數人,	한 시대에 단지 두어 명 뿐,
餘子故多疵.	나머지는 한결같이 흠이 많았다네.
敦厚旨則同,	돈후의 취지도 같으려니와,
忠孝無改移.	충효도 고쳐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네.
元明不能變,	원과 명이 변할 수 없었던 것은,
非僅氣力衰.	단지 기력이 쇠해서 만이 아니라네.
能事有止境,	잘할 수 있는 일도 종점이 있는 법이거늘,
極詣難角奇.	최고의 조예에 이르면 기이함 다투기 어렵다네.
奈何愚賤子,	어찌하여 어리석고 천한 자들은,
唐宋分藩籬.	당과 송으로 울타리를 쳐 나누려 하는가?
哆口崇唐晉,	입만 열면 당시를 숭상하니,
羊質冒虎皮.	양의 몸통에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격이라네.

習爲廓落語,	내용 없는 공허한 말만 익히려 드니,
死氣蒸伏屍.	죽은 기운이 엮던 시신을 푹푹 찌네.
擄架陳氣象,	시령에 버팀으로써 기상을 펼친다 하고,
桎梏立威儀.	속박함으로써 위의를 세운다 하네.
可憐餒敗物,	가련하도다! 부패하여 변질된 음식으로,
欲代郊廟犧.	천제와 종묘제의 희생을 대신하고자 하네.
使爲蘇黃僕,	설령 소식과 황정건의 종이 된다 하여도,
終日當鞭笞.	온 종일 채찍으로 매를 맞을 것이네.
七子推王李,	칠자 중 왕세정과 이반룡을 추존하더라도,
不免貽笑嗤.	비웃음 남기는 것 면하지 못하였네.
況設土木形,	하물며 흙과 나무로 만든 인형을 진열하여,
浪擬神仙姿.	헛되이 신선의 자태를 본뜬에 있어서라!
李杜若生晚,	이백과 두보가 만약 늦게 났다면,
亦自易矩規.	또한 저절로 본보기 바꾸었을 것이네.
寄言善學者,	배우기를 잘하는 자들에게 말 부치노니,
唐宋皆吾師.	당과 송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네. ¹¹⁾

장사전의 복고와 모의 풍조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주로 명대 복고를 주장했던 진후칠자와 그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격조파에 대한 평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왕세정과 이반룡을 추존한 격조파의 '宗唐'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종당'의 추구는 마치 '흙과 나무로 만든 인형'〔土木形〕으로 '신선의 자태'〔神仙姿〕를 본뜨는 격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이백과 두보가 만일 당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격조파 시인들이 배운 '종당'의 본보기 또한 바뀌었을 것이라고 하여, 주체성을 잃은 그들의 무분별한 복고 풍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唐詩'〔唐詩〕를 숭상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마치 '양의 몸통에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羊質冒虎皮〕 꼴이라고 비꼬았다.

11) 《忠雅堂詩集》 권13 (《忠雅堂集校箋》 권2, 986쪽)

그러나 장사전이 후대 시인들의 본보기가 되는 당대의 빼어난 작품을 ‘신선의 자태’ 혹은 ‘호랑이 가죽’에 비유한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당대 시인들의 시적 성과를 어느 정도 긍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뛰어난 작품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모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敦厚와 忠孝—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심덕잠은 명대 복고주의 문학론을 주도한 전후칠자를 정면으로 변호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가 전후칠자를 추존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당시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심덕잠 역시 당시를 ‘正軌’ 혹은 ‘正聲’으로 받들고, 당시야말로 ‘詩敎’를 회복하는 근본으로 여겼던 것이다.

宋代 이후로 元·明 양대를 거치면서 시단에는 미약하나마 ‘宗唐’ 혹은 ‘宗宋’의 편향적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당시가 正宗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清代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니, 즉 ‘종송’의 경향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청대에 각종 학술사업이 대대적으로 정리되고 집대성되는 과정에서 시가 영역 또한 그러한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으니, 학문의 숭상을 시학이론에 접목시킨 청대의 시학가들은 시를 일률적으로 唐宋의 경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송시를 선호하는 ‘종송’의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¹²⁾

장사전은 이러한 ‘종송’의 경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종당’의 격조와 시인들만큼 심하게 깎아내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인들이 설령 蘇軾과 黃庭堅을 추존하여 그들과 비슷한 풍격의 작품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도저히 수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결과적으로 모의의 대가로 온종일 매를 맞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과 송의 시인들은 모두 뛰어난 작가들로

12) 청대에 ‘宗宋’의 경향을 보인 시파로는, 중기의 浙派·性靈派·肌理派와 중·후기의 宋詩派 그리고 후기의 同光體 등이 있다.

서, 각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를 짓고 그에 걸맞은 독자적 시풍을 개척해 내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천한 자들은 쓸데없이 당송를 구획하고 유파를 형성하니, 이는 마치 죽은 기운이 엮어진 시체를 푹푹 찌게 만드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결국 당의 시도 내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고 송의 시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각의 장점을 적절하게 흡수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IV. 忠孝와 義烈의 표방—杜甫 시에 대한 추승

장사전은 〈邊隨園遺集序〉에서 王安石이 〈詩解序〉에서 “시는 위로는 도덕에 통하고, 아래로는 예의에 머문다.”(詩上通乎道德, 下止乎禮義.)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¹³⁾, 인륜에서 시의 역할을 제기하였다. 인간의 참된 성정을 시에 드러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정의 구체적 체현은 곧 인륜으로 귀결되고, 인륜은 다시 忠孝와 義烈의 덕목을 표방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題秦樹峰尙書味經圖舊照〉 5수 중 제3수에서 “인륜은 지극한 성정에 관여하고, 학문은 고아한 정감에 달려있다.”(人倫關至性, 問學契高情.)라고 하여¹⁴⁾ 시인의 성정과 인륜의 상관관계를 말하였다. 참된 성정의 外延격인 인륜에서 그가 추구한 세부 덕목은 바로 충효와 의열이었으니, 충효와 의열은 참된 성정의 중심 내용이자 作詩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주제로 인식될 수 있다.

장사전이 시의 내용적 측면에서 충효와 의열을 표방함은 기본적으로

13)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02쪽)

14) 《忠雅堂詩集》 권9 (《忠雅堂集校箋》 권2, 758쪽)

그의 솔직담백하고 충직하며 의협심이 강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원매는 일찍이 장사전이 “忠義의 일을 들으면 慷慨하여 동참하려 하고, 남의 위급한 일에 달려들기를 마치 사나운 새가 덩벼들 듯 하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에 인색한 법이 없었다.”¹⁵⁾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당하면 비록 권세가라 하더라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¹⁶⁾라고 하여, 그의 강직한 인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사전은 충효와 의열의 구체적 체현에 대해 〈鍾叔梧秀才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송의 체현들은 서로 답습할 필요 없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쓰고 본 것을 곧바로 나타내지만, 그들의 인품과 학술은 은연중에 그 사이에서 뛰어 오른다. 이른바 忠孝와 義烈의 마음과 溫柔敦厚의 취지는 같은 것이다. 지난 날 同學 두세 사람과 시를 논의함에, 먼저 답습을 경계하고 오로지 독서를 많이 하여 기운을 기르는 데 힘쓰며, 옛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략에 대해 모두 힘을 다해 함께 그러게 되는 까닭을 궁구하였고, 이백·두보·한유·구양수·소식·황정건의 시문집을 구하여 숙독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전에 지은 시가 무엇과 비슷한지를 스스로 고찰하지 않았다. 지은 시가 있으면 더 이상 체현들의 시편을 기억하지 않고 지은 시가 모두 나의 시이기를 바랐다. 진실로 후세에 전해지면서 논의하기를 숭상하는 선비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하니, 오호라! 참으로 말하기 어렵도다.

唐·宋諸賢不必相襲，寓目即書，直達所見，其人品學術，隱然躍躍於其間。所謂忠孝義烈之心，溫柔敦厚之旨則一焉。曩與同學二三者論詩，首戒蹈襲，唯務多讀書以養其氣，於古人經邦致治之略，咸孜孜焉共求其故，取李·杜·韓·歐·蘇·黃諸集熟讀深思之，不自逆他日所作何似。及有所作，則不復記諸賢篇什，庶幾所作者皆我之

15) 《小倉山房文集》 권28 〈蔣心餘藏園詩序〉：聞忠義事，慷慨欲赴；趨人之急，若鷲鳥之發，恩鰥寡者艾，無所靳。(《袁枚全集》 권2, 490쪽)

16) 《小倉山房文集》 권25 〈翰林院編修候補御史蔣公墓志銘〉：遇不可於意，雖權貴，幾微不能容。(《袁枚全集》 권2, 443쪽)

詩. 苟傳諸後世, 而尙論之士, 皆得有以諒其心. 嗚呼! 蓋難言矣.¹⁷⁾

그는 먼저 인품과 학문적 업적이 출중한 唐宋 제현들의 시적 경지가 바로 ‘忠孝와 義烈의 마음’이요 ‘溫柔敦厚의 취지’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宋代 程朱理學의 관점에서 보면, 人性은 ‘義理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뉘는데, 그 분류의 기준은 천부적인 자연본성과 보편적인 도덕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사전이 인식한 인성이란 곧 ‘의리지성’으로, 讀書와 養氣에 바탕을 둔 충효와 의열의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제기한 충효와 의열의 마음은 바로 유가에서 선양한 도덕규범으로, 이는 그의 사상이 다분히 理學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세 이론가들은 똑같이 성령시설을 주장하였지만, 원매와 장사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이 점에서 있다고 하였으니, 원매의 시가에 대한 요구는 ‘기질지성’의 진솔한 표출이며, 장사전의 시가에 대한 요구는 ‘의리지성’에 바탕한 충효와 의열의 표출로 나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장사전은 충효 관념에 투철한 인물이었으니, 〈辯詩〉에서 “돈후의 취지도 같으려니와, 충효도 고쳐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네.”(敦厚旨則同, 忠孝無改移.)라고 하여,¹⁸⁾ 시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만고불변의 주제가 바로 운유돈후와 충효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課兒〉에서 “충효의 글을 잡다하게 기록하여,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읽히네.”(雜錄忠孝文, 孳孳教兒讀.)라고 하고,¹⁹⁾ 〈讀史〉에서 “규방의 아낙도 알아듣고 충효를 말하니, 한밤중에 뒤따르며 뵈시니 귀신을 흐느끼게 하네.”(閨人解聽談忠孝, 午夜追陪泣

17)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13쪽)

18) 《忠雅堂詩集》 권13 (《忠雅堂集校箋》 권2, 986쪽)

19) 《忠雅堂詩集》 권14 (《忠雅堂集校箋》 권2, 1052쪽)

鬼神.)라고 한²⁰⁾ 것으로 보아 그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늘 충효의 관념을 간절하게 품고 살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문집 중에 충효를 표방한 시문이 적지 않으니, 〈題婁妃墓圖〉·〈盧孝子詩〉·〈康山忠臣墓〉·〈岳鄂王墓〉·〈江孝子詩〉·〈高孝子傳〉·〈劉孝子傳〉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장사전이 역대로 추앙하였던 충신과 효자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로는 杜甫·史可法·于謙·江萬里 등이 있다.²¹⁾

明末의 충신 史可法(?~1645)을 예로 들면, 장사전은 건륭 13년(1748)〈梅花嶺弔史閣部〉시를 지었고,²²⁾ 건륭 38년(1773)부터 이듬해까지 千餘금을 들여 梅花嶺에 사가법의 祠堂과 衣冠墓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당시 運使로 있던 관원이 허락하지 않자 작은 규모의 사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음을 개탄하였으며,²³⁾ 건륭 43년(1778) 〈梅花嶺謁史忠正祠墓〉시를 지어²⁴⁾ 후세 충신의 전범이 된 사가법을 깊이 애도하였다.

충효 외에 장사전은 또한 義氣와 節烈을 중시하였으니, 이는 의로움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던 부친 蔣堅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淸容居士行年錄〉 乾隆23년 戊寅 癸巳(34세) 조목에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 지방의 오랜 친구인 수재 심용문이 죽자 그의 아들이 북쪽에서 찾아왔다. 이에 장례비를 보태주고 노잣돈까지 주어서 그를 보냈다. 기미년에 한림학사를 지낸 선화 지방의 요천우가 죽고 나자, 그의 둘째 아들 아무개가 불초하여 자신의 딸을 팔고 진 아무개를 첩으로 맞아들였다. 내가 이 소

20) 《忠雅堂詩集》 권8 (《忠雅堂集校箋》 권2, 729쪽)

21) 劉小成, 〈論蔣士銓의 詩學理論〉, 《泰山學院學報》, 2004년, 제26권 제5 기.

22) 《忠雅堂詩集》 권2 (《忠雅堂集校箋》 권1, 199쪽)

23) 〈淸容居士行年錄〉 (乾隆 38년 癸巳-49세) 조목 참조. 《忠雅堂文集》 부록1 (《忠雅堂集校箋》 권4, 2482쪽)

24) 《忠雅堂詩集》 권24 (《忠雅堂集校箋》 권3, 1559쪽)

문을 듣고 화가 나서 有司에게 알리고는 某 侍御史의 조카를 배필로 얻어주었다. 이전에 위휘 지방 某 太守의 아들이 저자에서 빌어먹고 다니기에 내가 갓옷이 든 봇짐을 꾸려주고 銀子를 주어서 그를 돌려보냈다.

湖州老友沈秀才龍文卒，子北來相訪，乃助以葬費，並給資斧遣之。己未翰林宣化姚天祐故後，次子某不肖，將鬻其女與秦某爲妾，予聞而憤之，鳴于有司，得配某侍御從子。前衛輝某太守之子，行乞于市，予資之衣裘行李，助以白鑿，使之歸。²⁵⁾

장사전은 자신의 생활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경에 처한 두 명의 젊은이를 도와주고, 또 못한 아버지 때문에 팔려간 여자 아이의 배필까지 구해주었다는 사실은 그가 의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烈女節婦에 대해서도 그들의 節義를 기리는 적지 않은 시편을 남겼으니, 〈吳節母〉·〈關節母〉·〈韓烈婦〉·〈鮑節母詩〉〈天長江烈女歌〉·〈沈節母詩〉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충효와 의열의 표방을 강조한 장사전은 평생 동안 憂國愛民의 정서를 작품에 반영해낸 盛唐의 杜甫를 극도로 추송하고 그의 시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니, 〈杜詩詳注集成序〉 첫머리에서 두보의 시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보의 시는 시 중의 四子書이다. 일은 윤리와 기강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도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취지는 국풍과 이소에 넘쳐나고, 체재는 시경의 雅와 頌을 겸하여 갖추고 있다. 시인의 성정이 도탑기와 의론이 순일하기로는 두보를 능가하는 이가 없다.

杜詩，詩中之四子書也。事不出倫紀之間，道不出治平之內，而趣溢於風騷，體兼乎雅頌，詩人性情之厚，議論之醇，無有過於少陵者。²⁶⁾

25) 《忠雅堂文集》 부록1 (《忠雅堂集校箋》 권4, 2479쪽)

26) 《忠雅堂文集》 권2 (《忠雅堂集校箋》 권4, 2032쪽)

먼저 두보의 시를 四子書에 견주었으니, 四子書란 바로 《논어》와 《대학》 그리고 《중용》과 《맹자》를 가리킨다. 杜詩의 내용을 ‘윤리와 기강’〔倫紀〕 그리고 ‘치국과 평천하’〔治平〕로 귀결시킨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장사전이 杜詩의 어느 측면을 높이 평가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南池杜少陵祠堂〉 제2수에서 두보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추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先生不僅是詩人,	선생은 단지 한 사람의 시인일 뿐 아니니,
薄宦沈淪稷契身.	하찮은 벼슬로 불우하였으나 신분은 稷契이었다네.
獨向亂離憂社稷,	홀로 난리를 쫓아 사직을 걱정하였으니,
直將歌哭老風塵.	줄곧 부르짖고 울다가 풍진 속에서 늙어갔다네.
諸侯賓客猶相忌,	제후와 빈객들은 오히려 시기하였으니,
信使文章自有眞.	진실로 문장에 참됨을 담았다네.
一飯何曾忘君父,	한 끼 밥 먹을 때도 어찌 일찍이 임금을 잊었던가?
可憐儒士作忠臣.	가련하도다. 선비가 충신이 될 줄이야. ²⁷⁾

安祿山の 난이 일어난 것은 두보의 나이 44세 되던 해였다. 그는 일시적으로 반란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되었으나 천신만고 끝에 탈출, 새로 즉위한 肅宗의 行在所를 찾아간 공이 인정되어 左拾遺의 직책에 오르게 된다. 당대 좌습유의 직책은 총 30 품계 중 제25품에 해당하는 從八品上의 낮은 관직에 불과하나 당시 그의 숙종에 대한 충성심만을 놓고 본다면, 舜 임금을 보좌하여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농업 담당의 稷과 司徒 직책을 관장한 契의 위상과 맞먹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尾聯에서는, 蘇軾이 〈王定國詩集敘〉에서 “고금에 시인이 많지만 두보를 으뜸으로 삼으니, 이는 어찌 그가 정처 없이 유랑하며 굶주리고 추위

27) 《忠雅堂詩集》 권2 (《忠雅堂集校箋》 권1, 194쪽)

에 떨면서도 죽을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였으나, 밥 한 끼 먹을 때조차도 임금을 잊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古今詩人衆矣, 而杜子美爲首, 豈非以其流落饑寒, 終身不用, 而一飯未嘗忘君也歟?)라고²⁸⁾ 추앙한 이래 두보의 忠君愛國의 충정에 대한 찬사로 대표되는 ‘밥 한 끼 먹을 때에도 임금을 잊지 못한다’(一飯不忘君)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시에 인륜의 덕목 중 충효와 의열을 표방하기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실제비평의 본보기로 두보 시를 제시하였으며, 두보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지녔던 장사전은 평생 백성들의 질곡과 관료사회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현실지향적 성향을 지녔기에, 원매는 〈翰林院編修候補禦史蔣公墓志銘〉에서 일찍이 장사전의 才學과 人品을 흠모하여 “그의 가슴 속에 한 순간이라도 세상을 잊은 적이 없었다.”(其胸中非一刻忘世者.)라고²⁹⁾ 애도하였다.

V. 黃庭堅 시에 대한 경도

장사전은 일찍이 자신의 學詩 경력을 회고하면서 〈學詩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15세에 시를 배웠는데, 李商隱을 읽고 그를 좋아하였다. (지은 시가) 쌓여 40수가 되자 싫어졌고, 19세에 그것을 태워 버렸다. 마음을 바꾸어 두보와 한유를 읽었고, 40세에 비로소 소식과 황정건을 함께 취하여 배웠다. 50세에는 그것마저 버리고, 오로지 본 바를 그대로 펼쳐냄에 옛 사람을 모방하지 않고 나의 시를 짓게 되었다.

予十五齡學詩, 讀李義山愛之, 積之成四百首而病矣, 十九付之一炬; 改讀少陵·昌

28) 《東坡集》 권34

29) 《小倉山房文集》 권25 (《袁枚全集》 권2, 443쪽)

黎. 四十始兼取蘇·黃而學之; 五十棄去, 惟直抒所見, 不依傍古人, 而爲我之詩矣.³⁰⁾

15세에 晚唐 이상은의 시를 배우면서 장사전의 학시 경력은 시작된다. 그런데 4년 뒤인 19세가 되자 그때까지 지은 400여 수의 시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이후 젊은 시절 내내 두보와 한유를 배우다가, 40세 이후 10여 년 동안은 소식과 황정건을 함께 배웠으며, 50세 이후로는 전대 작가들의 율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느낀 바를 소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고 회고하였다. 약관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그때까지 지은 400여 수나 되는 시를 불태워버린 일에 관해서는 자신의 이력을 기록한 〈淸容居士行年錄〉(乾隆 6년 辛酉-17세)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름한 의자에 곳곳하게 앉으니 흰 달빛이 바라지 문을 뚫고 들어온다. 멍하니 생각에 잠겼는데 깨달은 바가 있는 듯하였다. 아픈 몸 억지로 일으켜 남은 촛불 밝히고 대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淫靡하고 綺麗한 내용의 詩冊 수십 권과 지은 艷詩 400여 수를 끄집어내어 뜰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허물을 뉘우치며 절대로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兀坐繩牀, 皎月穿戶牖, 嗒然而思, 若有所悟者. 力疾起燃殘燭, 出籠中淫靡綺麗之書數十冊, 並所著艷詩四百餘首, 火於庭. 向天泥首悔過, 誓絕妄念.³¹⁾

청년 시절의 장사전이 심취한 전대 작가는 바로 만당의 이상은이었음을 알 수 있으니, '淫靡'함과 '綺麗'함은 곧 이상은 시의 대표적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은의 시를 본받아 지은 400여 수나 되는 艷詩를 詩冊과 함께 불태워버리면서 다시는 이상은 계열의 艷詩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후로 대략 20여 년 동안 두보와 한유

30) 《忠雅堂文集》 권2 (《忠雅堂集校箋》 권4, 2060쪽)

31) 《忠雅堂文集》 부록1 (《忠雅堂集校箋》 권4, 2471-2472쪽)

의 시를 배우다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어서는 소동파와 황정건의 시를 함께 배우게 되는데, 특히 황정건을 주로 하였으니, 〈十八夜露坐東穀原〉 시에서 “시가 좋아서 근래 黃庭堅을 즐기네.”(好詩近耽黃魯直)라고 하였다.³²⁾ 이 시가 乾隆 21년 丙子年(1756) 그의 나이 32세 때 지은 것임을 감안한다면, 〈學詩記〉에서 40세에 황정건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이전에 황정건의 시에 심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錢鍾書(1910~1998)는 《談藝錄》에서 “이제 살펴보건대, 그의 병자년 이전의 시는 그 시대의 가락을 벗어날 수 없었고, 병자년 이후 권5로부터 시작하여 황정건의 시를 모방한 자취가 뚜렷하니, 특히 7률의 拗調가 심하다.”라고 하였다.³³⁾

원래 또한 일찍이 장사전과 시를 논하면서, 장사전은 황정건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양만리를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장사전과 나는 서로 추천하고 인정해주는 사이지만 시를 논함에 서로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다. 나는 황정건을 좋아하지 않고 양만리를 좋아하나, 장사전은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고 황정건을 좋아한다. 마음은 조화를 이루면서도 견해는 각기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다.

蔣苕生與餘互相推許，惟論詩不合者：餘不喜黃山穀，而喜楊誠齋；蔣不喜楊，而喜黃：可謂和而不同。³⁴⁾

장사전은 황산곡을 좋아하고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양만리를 좋아하고 황산곡을 좋아하지 않는다.

蔣心餘好山穀，而不好楊誠齋；僕好誠齋，而不好山穀。³⁵⁾

32) 《忠雅堂詩集》 권5 〈十八夜露坐東穀原〉 2수 중 제1수의 시구이다.

33) 《談藝錄》 권41 ‘蔣士銓詩’：今按丙子以前詩，無以撥乎時調；丙子以後，自卷五起，摹仿黃詩之跡顯然，尤以七律拗調爲甚.

34) 《隨園詩話》 정편8-92 (《袁枚全集》 권3, 272쪽)

35) 《小倉山房尺牘》 권10 〈再答李少鶴〉 (《袁枚全集》 권5, 207쪽)

그렇다면 장사전은 어떤 연유로 황정견의 시를 좋아하였는가? 실제로 황정견의 어떤 면모에 이끌려서 그의 시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장사전은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매 역시 단순히 好不好的의 관계만을 언급하였을 뿐 별도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 錢鍾書는 양만리의 시와 황정견의 시를 비교하여, 전자는 경쾌하고 분명하여 俗語常談이 섞여 있고, 후자는 경전을 인용하여 넓고 오묘하며 어렵고 깊이가 있다³⁶⁾고 하였다. 그리고 두 작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晚唐詩를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만리는 처음에 강서시파를 배우고 싫증이 나서 왕안석의 절구를 배웠으며, 그 후에 晚唐 作家的 절구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한³⁷⁾ 반면, 황정견은 그 누구보다도 晚唐詩를 싫어하였다.³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장사전이 왜 10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심취했던 만당 이상은 계열의 유티주의 경향의 시풍을 일찌감치 폐기하고, 불혹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황정견의 시로 기울어졌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사전이 황정견의 시에 경도된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그의 스승 金德瑛(1701~1762)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김덕영은 秀水人으로 자가 汝白 호가 檜門이며, 건륭 원년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左都禦史에 이

36) 錢鍾書, 《宋詩選註》 '楊萬裏 小傳' 159쪽 : 我們進一步的追究, 就發現楊萬裏的詩跟黃庭堅的詩雖然一個是輕鬆明白, 點綴些俗語常談, 一個是引經據典, 博奧艱深. (역문은 李鴻鎮 譯, 《宋詩選註》 210쪽 참조)

37) 李鴻鎮 譯, 《宋詩選註》 211쪽 참조. 같은 책에서 양만리의 學詩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誠齋集》 권8 〈讀唐人及半山詩〉· 권35 〈答徐子材談絕句〉· 권83 〈願菴詩稿序〉 및 권114 〈詩話〉 등이 있다고 말하였다.

38) 《山穀老人刀筆》 권4 〈與趙伯充〉: 學老杜詩, 所謂“刻鵠不成尚類鶩”也; 學晚唐諸人詩, 所謂“作法於涼, 其敝猶貪, 作法於貪, 敝將若何!” (李鴻鎮 譯, 《宋詩選註》 211-212쪽 재인용)

르렀고, 저서로는 《檜門詩存》이 있다. 건륭 11년 김덕영이 江西의 鉛山에서 장사전의 시집을 보고 크게 칭찬하여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장사전은 김덕영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김덕영은 당시 浙派의 한 갈래인 秀水派³⁹⁾의 중심인물로서, 이들 시파의 주요 특징은 황정건을 중주로 삼고 ‘江西詩風’을 진작시키는데 있었다. 장사전은 〈金檜門先生遺詩後序〉에서 스승 김덕영의 학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금 선생의 시를 살펴보면, 잇달아 증답시를 노래함에서부터 사물을 체현하고 감정을 말해내는 여러 시편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격식을 쓸어버리지 않음이 없었으니, 참된 성정을 엮어매어 갑자기 꺾였다가 넘쳐나기도 하며, 본 것을 곧바로 나타내었다. 한유와 두보 그리고 소식과 황정건 사이를 넘나드니, 비유컨대 이름난 장수가 병사를 부림에 성벽과 보루에 깃발을 세우고 스스로 하나의 군대를 세우나 기율이 삼엄하여 모두 은연중에 孫武와 吳起 그리고 衛靑과 霍去病의 병법에 부합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틀림없이 마음이 꺾일 것이다.

今按先生詩，自賡颺贈答，以及體物言情諸什，無不掃除窠臼，結構性眞，頓挫淋漓，直達所見。出入韓杜蘇黃間，譬諸名將用兵，旌旗壁壘，自立一軍，而紀律森嚴，皆暗合乎孫吳衛霍之法。世有知者，定當心折也。⁴⁰⁾

장사전은 김덕영의 다양한 제재의 시편들이 한결같이 기존의 진부한 격식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참된 성정을 표출해내었으며, 당의 두보와 한유 그리고 송의 소식과 황정건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비록 스승의 학시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황정건 한 사람에 국한시키

39) 秀水는 지금의 浙江 嘉興으로, 이 지역 출신 시인들이 모여 秀水派를 결성하였다. 秀水派에 속한 시인들로는 金德瑛을 비롯하여 錢載(蘧石)·萬光泰(柘坡)·王又曾(穀原)·汪仲鈞(豐玉)·沈濤(匏廬)·張埏(瘦銅) 등이 있다.

40) 《忠雅堂文集》 권1 (《忠雅堂集校箋》 권4, 2000-2001쪽)

지는 않았지만, 김덕영이 궁극적으로는 강서시파의 祖宗격인 황정견을 배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사전이 구체적으로 황정견 시를 배운 흔적을 보이고 있는 시편이 있으니, 〈文字〉 제3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精熟文選理,	《文選》의 이치에 정밀하고 익숙하라고,
少陵亦有言.	杜甫 역시 말하였네.
豈謂摭浮艷,	어떻게 浮艷함을 주워,
詡詡華藻間?	화려한 詞藻 사이에 날개 치는 것을 말한 것이겠는가?
摘獵什佰字,	수백 수십 자를 뽑고 사냥하여,
僻詭矜調鏘.	편벽되고 괴상함을 아로새긴다고 자랑하였네.
復贅雜腐晦,	겹치고 군살 붙은 데가 진부함과 희미함이 섞여 있고,
拗澁兼拘牽.	꺾이고 난삽한데다 얽매임과 억지를 겸하였다네. ⁴¹⁾

송초에 李商隱과 溫庭筠을 중주로 삼고 楊億에 의해 창도된 西崑體는 詞藻를 추구하고 전고를 즐겨 사용하여 詩語가 綺麗하고 語意가 輕淺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사전은 서곤체 시인들이 浮艷한 시어를 사용하여 ‘화려한 사조’(華藻) 사이에서 재주부리고 ‘편벽되고 괴상한’(僻詭) 전고를 즐겨 사용함으로써 내용이 공허한 형식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고 비판하였다. 장사전이 힘써 배우고자 하였던 강서시파의 영수 황정견은 이러한 서곤체의 華靡한 시풍에 반대하여 두보와 한유 그리고 孟郊와 張籍을 본보기로 삼으며, 工力을 숭상하고 琢磨를 중시하였다. 아울러 두보의 시는 ‘내력이 없는 것은 한 글자도 없다’(無字無來處)라고 하며, 시에는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장사전이 황정견의 시를 배움은 그 출발이 서곤체의 반대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사전은 자신이 江西 출신인데다 스승 김덕영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

41) 《忠雅堂詩集》 권13 (《忠雅堂集校箋》 권2, 986쪽)

하는 詩友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황정견의 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그의 강직한 성격은 ‘瘦硬新奇’하고 ‘峭拔古樸’한 풍격으로 상징되는 황정견 시의 拗體 시풍과 여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VI. 결 론

청대 건륭 시기 性靈詩派의 一人으로 당시 ‘乾隆三大家’로 불리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강직하게 일생을 살다간 장사전은, 論詩詩의 성격을 띤 몇몇 시편과 序跋類의 산문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자신의 시학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시학이론은 먼저 시는 인간의 참된 性情을 표출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그러한 목표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만이 자연스럽게 개성이 담긴 自我가 드러난 시를 지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표출된 성정은 人倫 중 忠孝와 義烈의 덕목을 표방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역대로 이러한 창작 정신에 가장 부합한 시인이 바로 盛唐의 杜甫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해 무한한 추송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작시 과정에서 가장 경계로 삼아야 할 점은 당시 일시에 성행한 復古와 摹擬의 기풍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주로 ‘宗唐’의 學詩 경향을 보이면서 형식적인 수사에 치중한 沈德潛을 중심으로 한 格調詩派의 詩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더하여 창작과정에서 才學으로 시를 짓고 ‘瘦硬’의 풍격을 추구한 江西詩派의 黃庭堅 시풍에 대한 경도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그의 성격과 당시 황정견의 시풍을 표방한 秀水派의 중심인물이었던 스승 金德瑛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복합적 원인으로 말미암

아 형성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스승 김덕영이 쓴 〈忠雅堂詩集序〉에는 장사전의 강직한 성격과 인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구한 그의 學詩 경향과 시학이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결론의 한 부분으로 삼고자 한다.

장사전은 끈은 절개와 청렴하고 민첩함으로 時俗에 어울리지 않았다. 경사에서 관직에 있을 때도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한 채 매일 부모님을 곁에 두고 모시면서 각고면려하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다. 또한 자주 다른 사람의 근심걱정을 도와주었기에 이 때문에 나날이 궁핍하였다. 임오년에 경사에서 치른 과거시험에서 선비 15명을 선발하였다. 매년 개탄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저는 곤궁한 선비로서 삼가 시종신도 분수에 넘치고 벼슬에도 즐릴하니 스스로 생각건대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또한 흠먼지 자욱한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굽어보는 저의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내년엔 가령 떠나기를 청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자네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 될 것이니 또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 시 몇 권을 끄집어내고는 한 마디 말로써 가르침을 청하였다. 무릇 행적이 있는 자는 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장사전은 나이 마흔에 평생 동안 남긴 행적이 없고 지조와 절개가 늠름하니, 옛 장부의 기개로써 스스로를 면려하였다. 말한 바는 모두 본성에서 나왔으니 옛 사람의 법도를 사용하였으나 애써 답습하는 데 힘쓰지 않고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니 우뚝 별도로 새로운 면모를 열었다.

君耿介廉敏，不諧於俗。官都下，閉門謝客，日依侍母側，刻苦齋鹽中。且數數拯人患苦，以是日空乏。壬午，分校京闈，得士十五人，每慨然向予曰：“某以窮士，忝竊侍從，拙於仕宦，自揣宜教授於鄉；吾母又不樂俯仰塵土中。明年且令乞請去，公爲何如？”予曰：“君行其志可耳，又奚疑？”乃出其詩若干卷，乞一言教之。夫有行者斯有言。君將四十，生平無遺行，志節凜凜，以古丈夫自礪。所言皆發諸性分，而用古人法律，不務勦襲，絕雷同，錚然別開生面。⁴²⁾

42) 《忠雅堂文集》 부록3 (《忠雅堂集校箋》 권4, 2496쪽)

【참고문헌】

- 蔣士銓 著, 邵海清 校, 李夢生 箋, 《忠雅堂集校箋》(全四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년)
- 袁枚 著·王英志 主編, 《袁枚全集》전8권 (江蘇古籍出版社, 1993년)
- 馬積高, 《清代學術思想的變遷與文學》(長沙: 湖南出版社, 1996년)
- 吳宏一 著, 《清代詩學初探》(臺北: 牧童出版社, 民國66년)
- 王英志 著, 《清人詩論研究》(揚州: 江蘇古籍出版社, 1986년)
- 張健 著, 《清代詩學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 錢仲聯·錢學增 選注, 《清詩精華錄》(濟南: 齊魯書社, 1987년)
- 錢鍾書 著·李鴻鎮 譯, 《談藝錄》(《中國語文學》 제16집-제34집)
- 錢鍾書 著·李鴻鎮 譯, 《宋詩選註》(서울: 螢雪出版社, 1989년)
- 劉小成, 〈論蔣士銓의 詩學理論〉, 《泰山學院學報》, 2004년, 제26권 제5기.
- 拙稿, 〈隨園詩話 研究〉(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년 6월)

中文摘要

蔣士銓 詩論 研究

申 載 煥

蔣士銓，清朝乾隆時期性靈詩派詩人之一，當時被稱爲‘乾隆三大家’。忠孝節義耿直地度過了一生。具有論詩色彩的幾篇詩篇和序跋類的散文中以短篇的形式說明了自己的詩學理論。首先，詩要以人的真誠的性情作爲最高的目標。只有有著這樣的目標意識，詩才能自然地具有個性的自我。他強調這樣表現出來的性情集中地標榜了在人倫中的忠孝和義烈。

他指出自古以來，最忠於這樣的寫作精神的詩人，就是盛唐時期的杜甫。而且又表明了自己對杜甫的無限的繼承的態度。他主張作詩過程中要警惕當時盛行的復古和摹擬的傾向，要果斷地舍棄它。蔣士銓論詩時竭盡全力地反對傾向‘宗唐’學詩風格而注重形式上修飾的以沈德潛爲中心的格調詩派的詩法。

在寫作過程中以才學爲中心追求‘瘦硬’風格的江西詩派黃庭堅的詩風所傾倒，可以看到蔣士銓不易妥協的耿直的性格。還有他與導師當時標榜黃庭堅詩風的秀水派的中心人物的金德瑛之間的關係等。這樣特殊情況下形成了蔣士銓的詩學理論。

關鍵詞

蔣士銓, 袁枚, 性情, 自我, 復古, 摹擬, 忠孝, 義烈, 杜甫 詩, 黃庭堅 詩, 金德瑛

▪ 논문투고일 : 2011.12.30 심사완료일 : 2012.2.8 게재결정일 : 2012.2.10